

[illegible]

학	원	은		우	리		집		바	로		맞	은	편	에		있	었	다	.
엘	리	베	이	터	를		타	고		내	려	가	서		아	파	트		단	
지	를		벗	어	나	면		곧	바	로		보	였	다	.	나	는		가	
벼	운		발	걸	음	으	로		학	원	을		지	나	쳐	간	다	.	그	
곳	에	서		두		블	록		정	도	를		더		걸	으	면		그	
편	의	점	이		보	인	다	.	그		즈	음	에	서		나	는		발	
걸	음	을		재	촉	하	기		시	작	한	다	.	편	의	점		건	물	
이		가	까	워	질		수	록		심	장	이		크	게		쿵	황	거	
린	다	.	마	침	내		편	의	점	에		다	다	랐	다	.	크	게		
숨	을		몰	아	쉬	며		뒤	를		돌	아	보	면		어	느	새		

우	리		집		건	물	이		작	은		점	이		되	어		있	다	.
	편	의	점		문	을		열	자		경	쾌	한		종	소	리	가		
울	려	퍼	졌	다	.	나	는		숨	이		차	서		마	스	크		밑	
부	분	을		살	짜		들	어	올	린		채		거	푸		거	친		
숨	을		몰	아	쉬	었	다	.	각	종		과	자	와		주	스	를		
계	산	대	에		올	려	놓	고		바	깎	을		바	라	보	았	다	.	
편	의	점		바	깎		테	이	블	에	는		오	늘	도		어	김	없	
이		아	빠	가		았	아		있	다	.	잘		다	린		흰	색		
와	이	셔	츠	에		넥	타	이	를		한	껏		풀	어	헤	친		아	
빠	.	오	늘		아	침		회	사	에		다	녀	오	겠	다	며		나	

간		아	빠	.	아	르	바	이	트	생	이		백	,	백		소	리	를
내	며		과	자	와		주	스	를		계	산	할		동	안		아	빠
는		따	분	해		보	이	는		얼	굴	로		멍	하	니		지	나
가	는		사	람	들	을		한	참		바	라	보	았	다	.			
	나	는		아	빠	의		맛	은	편	에		자	리	를		잡	고	
았	아		과	자		봉	지	들	을		테	이	블		위	에		우	수
수		쏟	았	다	.	아	빠	가		나	를		힐	끔		바	라	보	았
다	.	아	빠	의		시	선	이		어	깨		위	로		떨	어	졌	다
		“	안		무	겁	냐	?	”										
		“	여	기	에		아	무	것	도		안		들	었	어	.	”	

	나	는		가	방	을		털	듯	이		어	깨	를		으	쓱		들
썩	이	며		대	답	했	다	.	우	리	는		말	없	이		과	자	
봉	투	를		뜯	고		먹	었	다	.	아	빠	는		짤		과	자	를
먹	으	면	서		이	따	금		편	의	점		창	에		불	은		신
상		맥	주		광	고	를		힐	끔	거	리	기	는		했	지	만	,
그	렇	다	고		해	서		나	만		두	고		편	의	점	에		들
어	가	버	리	지	는		않	았	다	.	아	마		나	와		만	나	기
전	에	는		마	음	대	로		편	의	점	을		들	락	거	렸	을	
것	이	다	.	맥	주	도		마	음	대	로		마	시	고		담	배	도
피	고		싶	은		만	큼		피	고	.								

	여	기	에	서		아	빠	를		처	음		만	난		지	도		벌
써		꽤		되	었	다	.	내	가		엄	마		몰	래		학	원	을
그	만	둔		지		2	주		정	도	가		지	났	으	니	,	아	빠
와		편	의	점	에	서		마	주	친		지	는		열	흘		정	도
되	었	을		것	이	다	.	아	빠	는		나	를		마	주	친		첫
날	에		모	든		것	을		털	어	놓	았	다	.	코	로	나		때
문	에		회	사		내	부		사	정	이		급	격	히		나	빠	졌
다	는		것	과	,	정	리	해	고		대	상	이		되	어		더	
이	상		회	사	를		다	니	지		못	하	게		되	었	지	만	
아	직		엄	마	에	게		털	어	놓	지		못	했	다	는		것	,

나	와		아	주		비	슷	한		사	정	이	었	다	.	그	래	서	
나	도		아	빠	에	게		모	든		것	을		털	어	놓	았	다	.
마	지	막		시	험	에	서		10	점	이	나		떨	어	진		것	을
확	인	한		후		학	원	을		곧	장		끝	어	버	렸	다	는	
것	,	다	음	달		학	원	비		납	부	일	이		되	면		엄	마
가		금	방		눈	치	채	게		될		텐	데		아	직		말	하
지		못	하	고		있	다	는		것	.	우	리	는		당	분	간	
서	로	의		비	밀	을		지	켜	주	기	로		했	다	.	최	대	한
빨	리		엄	마	에	게		털	어	놓	아	야		한	다	는		조	건
을		서	로	한	테		내	걸	면	서	였	다	.	그		뒤	로		우

리	는		매	일		이		시	간	에		이		편	의	점	에	서	
모	였	다	.	나	는		집	에		있	다	가		학	원		가	는	
척	을		하	며		나	왔	고	,	아	빠	는		줄	곧		카	페	에
있	다	가		카	페		아	르	바	이	트	생	의		눈	치	를		못
이	겨		나	왔	다	.													
	“	이	제		슬	슬		엄	마	한	테		말	해	야		할	텐	데
																			.”
	“	말		하	면		되	지	.	”									
	“	그	러	면		내	가		성	적		평	균	이		10	점	이	나
떨	어	졌	다	는		것	까	지		말	해	야		하	잖	아	.	”	
	“	말		하	면		되	지	.	”									

	나	는		아	빠	를		노	려	보	았	다	.	아	빠	의		눈	은
태	연	하	고		무	심	해		보	였	다	.	아	빠	에	게	는		이
고	민	이		별	것		아	니	게		느	껴	지	는		것		같	았
다	.	자	신	에		비	하	면		사	사	로	운		문	제	라	고	
생	각	하	는		걸	까	.	하	지	만		나	는		그	렇	게		생
각	하	지		않	았	다	.	이		편	의	점	에	서	,	같	은		과
자	를		멍	하	니		함	께		집	어	먹	는		이		순	간	만
큼	은		아	빠	도		나	도		비	슷	한		신	세	가		아	닌
가	.	이		편	의	점	은		그	런		곳	이		아	닌	가	.	배
신	당	한		아	빠	와		나	다	.	버	려	진		길	고	양	이	나

별	반		다	를		것	이		없	어	지	는		곳	.	버	려	진	
것	들	이		모	여	드	는		곳	.									
	나	는		캔		주	스	를		잡	은		손	에		힘	을		몰
았	다	.																	
	“	아	빠	.	나		오	늘		집	에		가	면		엄	마	한	테
말	할		거	야	.”														
	“	...	...	.”															
	“	그		대	학		가	고		싶	지		않	다	는		것	도	.”
	아	빠	가		나	를		바	라	보	았	다	.	나	는		원	래	
하	루	도		빠	놓	지		않	고		성	실	히		학	원	을		다

니	던		학	생	이	었	다	.	그		이	유	인	즉	슨		엄	마	의
바	람	을		따	라		S	대	학	교	에		들	어	가	기		위	함
이	었	다	.	S	대	학	교	는		인	서	울	인		데	다	가		전
국	에	서	도		나	름		알	아	주	는		곳	이	었	기		때	문
에	,	매	일		문	제	집	과		참	고	서	가		가	득		들	어
무	거	운		가	방	을		들	고		밤	늦	게	까	지		학	원	에
다	녀	야		했	다	.	하	지	만		10	점	이	나		떨	어	진	
성	적	표	를		받	아	든		날	,	엄	마		몰	래		학	원	을
그	만	뒤	버	렸	던		그	날	,	사	실		나	는		S	대	학	교
에		가	고		싶	지		않	았	음	을	,	이	루	고		싶	은	

꿈	이		있	었	음	을		깨	달	았	다	.							
	이		편	의	점	에		오	면		현	실	과		동	떨	어	진	
기	분	이		들	었	다	.	모	두	가		바	쁘	게		걸	어	다	니
는		것	을		바	라	보	며	,	가	만	히		앓	아		시	간	을
축	이	는		나	날	,	어	떤		해	방	감	과		불	안	함	이	
동	시	에		밀	려	왔	지	만	,	건	너	편	에		있	는		아	빠
를		바	라	보	며		내	심		안	도	하	고		외	면	해	온	
것	일	지	도		모	른	다	.	하	지	만		언	제	까	지	고		이
편	의	점	에		머	무	를		수	는		없	었	다	.	나	는		테
이	블	에	서		일	어	났	다	.	가	방	을		두		어	깨	에	

들	쳐	매	고		집	을		향	해		걸	기		시	작	했	다	.	
	발	걸	음	을		빨	리	할	수	록		작	은		점		같	았	던
집	이		점	차		커	졌	다	.	뒤	를		돌	아	보	면		그	
편	의	점	에		여	전	히		아	빠	가		앞	아		있	다	.	마
치		고	여		있	는		사	람	처	럼	,	그		편	의	점	에	
꼭		머	물	러	야		할		사	람	처	럼	,	계	속	.			